

논란의 중심 챗GPT, 규제와 활용 갑론을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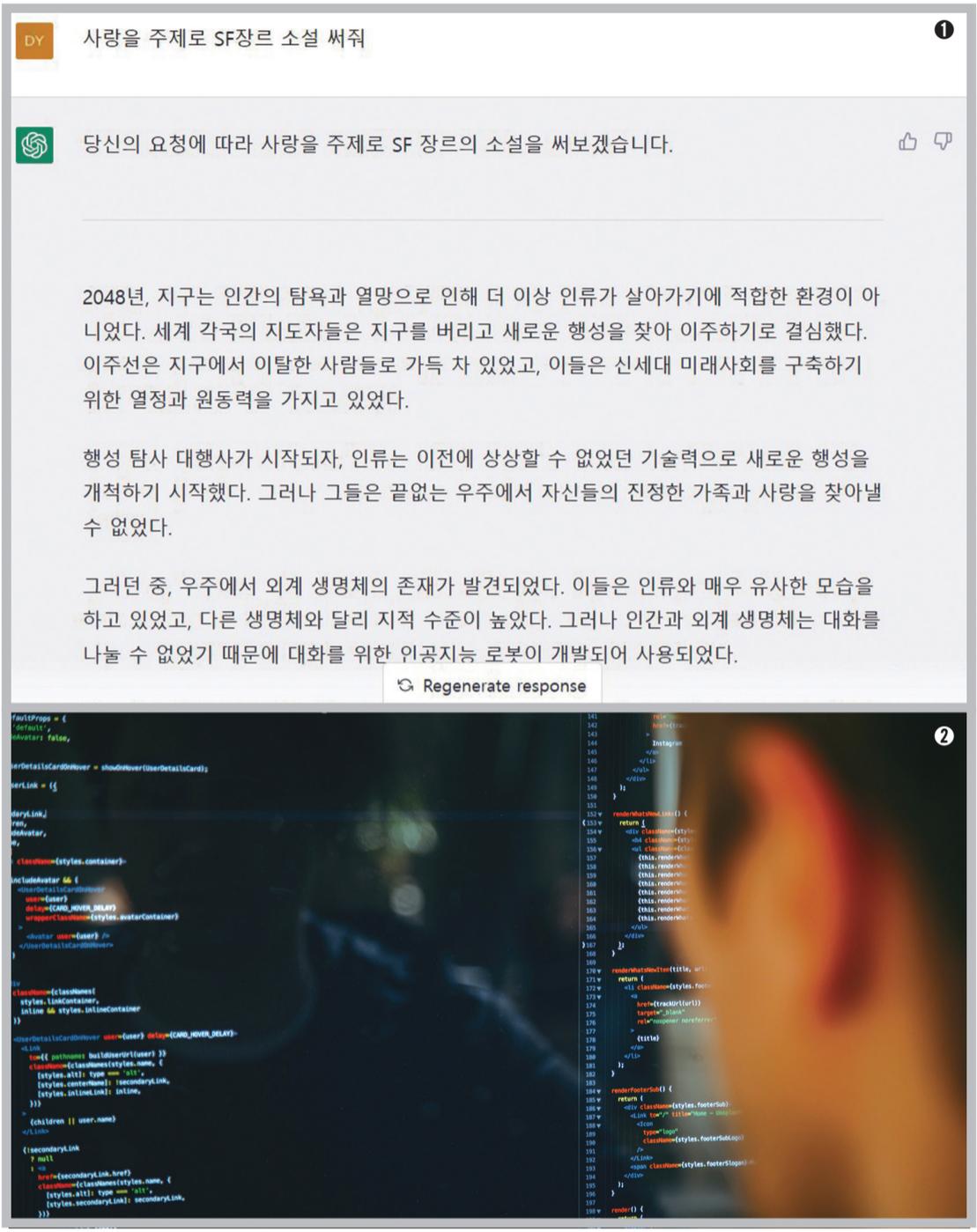
김경태 기자 dragonmoon2021@khu.ac.kr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챗GPT 등장과 함께 세계가 들썩이고 있다. 여파는 대학까지 전달됐다. 3월 개강과 함께 챗GPT 사용을 두고 비상이 걸린 것이다. 우리신문은 챗GPT의 동향을 살펴보고 챗GPT를 직접 체험해봤다.

떠오르는 뜨거운 감자 인공지능 챗봇, 챗GPT 각종 업계 비상

지난해 11월 오픈AI는 챗GPT를 출시했다. GPT는 ‘Generated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번역하면 ‘사전 훈련된 생성 변환기’이다. 채팅의 ‘챗’과 ‘GPT’가 합쳐진 일종의 인공지능(AI) 챗봇이다. 챗GPT는 텍스트가 주어지면 수집과 예측을 통해 답을 내놓는 딥러닝 모델이다. 즉 스스로 익히며 강화 학습을 수행한다. 챗GPT는 5일 만에 100만 명이 가입했으며, 두 달 만에 월간 사용자 1억 명을 돌파했다.

챗GPT가 주목받는 이유는 ‘맥락 파악’에 있다. 국내에서 AI 챗봇의 원조 격인 ‘심심이’와 2020년 출시된 ‘이루다’ 역시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대화한다. 그러나 심심이와 이루다가 공감을 위한 챗봇 기술에 중점을 뒀던 반면 챗GPT는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언어 모델을 구축한다. 이경전(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 교수는 “문맥을 이해해 대화를 생성하는 인류 역사 최초의 기계가 나왔다”며 “트랜스포머에 기반한 기술을 잘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의미를 학습하는 트랜스포머 기술에 따라 챗GPT는 대화에서 맥락을 이해하며 대화를 잇는 것이다. 기존과 다른 AI의 등장엔 저작권 문제와 밀접한 출판·음악·언론계 등은 비상이다. 챗GPT는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글쓰기 ▲논문 집필 ▲작사·작곡 ▲코딩까지 해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이란 제목의 자기 계발서가 출판됐다. 이 책은 챗GPT가 집필, 교정, 교열을 맡았으며 번역은 파과교가 진행했다. 기획, 인쇄, 출판의 과정만 사람이 관리했다. 책 출판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과정을 AI가 담당했다. 이렇듯 창작 과정에서 저작권자를 둘러싸고 챗GPT의 논란은 짙어진다.



챗GPT와 실제 대화한 내용. (사진 1=정다연 기자) (사진 2=언스플래쉬)

와이파이와 노트북만 있으면 교양 과제를 1분 만에 실상은 정확성 떨어지기도

이에 우리신문은 챗GPT를 직접 체험해봤다. 챗GPT는 와이파이와 노트북으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회원가입 후 바로 대화가 시작됐다. 일기는 물론, 간략한 에세이를 요청하면 1분 만에 완성해냈다. 챗GPT는 역시나 창작 활동에 두각을 보였다. 사랑을 주제로 SF 장르의 소설을 써달라는 까다로운 요구에도 막힘없이 소설을 썼다. 외계 행성과 인간, 로봇을 등장시켜 ‘사랑’과 ‘SF 장르’를 모두 만족시켰다. 또한 ‘일인칭 시점으로 바꿔줘’라는 요청에도 기존 소설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바꿨다. 실제 과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학교 필수교양

인 성찰과 표현 글쓰기 주제를 제시했다. ‘나를 움직인 말 한마디’를 주제로 에세이를 부탁했다. 챗GPT는 고민도 없이 에세이를 적었다. 글의 흐름은 자연스러웠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챗GPT를 움직인 말 한마디가 작성됐다. 그러나 허점은 존재했다. 답변 중간 글 작성을 멈추거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도 몇 있었다. 또한 이론을 묻는 질문에 정답을 답하지 못하기도 했다. 챗GPT는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챗GPT의 답변이 항상 해답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정보를 간편하게 얻을 수 있는 편리함은 있지만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에서는 비판 없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위반은 물론 과제 대필 악용 우려 대학가 대응책 마련에 분주

물으면 답을 내놓는 챗GPT의 특성을 악용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난다. 일례로 지난 1월 국내 국제학교 재학생 7명이 챗GPT로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하다 적발돼 0점 처리됐다. 챗GPT 악용 우려는 대학까지 확산됐다. 대학생들은 이미 챗GPT를 과제와 보고서 대필에 이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도 챗GPT 관련 게시글이 올랐다. “졸업 논문 챗GPT한테 써달라 할까”라거나 “챗GPT를 성찰과 표현에 이용하면 끝이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대학은 과제 악용을 우려하면서도, AI 관련 학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챗GPT 대책 마련에 급급하다.

각 대학은 최근에서야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는 챗GPT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톨게이트 논의를 시작했다. 또한 지난 28일 국민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이를 시작으로 각 대학은 대책 마련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 역시 챗GPT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 20일 학사지원팀과 학무부총장실, 기획조정처, 연구처, 교수학습개발원은 챗GPT 관련 첫 회의를 개최했다. 학사지원팀은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챗GPT와 대학 교육과의 관련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 학내 챗GPT 사용과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논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와 활용 사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해외 대학은 표절로 취급

국내 대학뿐 아니라 외국 대학도 챗GPT 사용을 중심으로 방향성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시작으로 ▲프랑스 ▲호주 ▲홍콩 등 각국 대학은 챗GPT 사용을 제한했다. 미국 워싱턴대학교와 버몬트대학은 학칙에 AI를 활용한 대필 등을 표절로 규정했다. 이어 하버드대학, 예일대학은 AI에 의해 작성된 글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인 ‘GPT 제로’ 프로그램을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와 반대 입장을 표했다. 직전 학기까지 인터넷을 활용해 오픈북 시험을 진행한 이 교수는 이번 학기 역시 챗GPT를 허용한다. 이 교수는 “(앞으로는 챗GPT를) 허용을 안 하는 게 아마 난센스가 될 것”이라며 “당연히 (이번 학기에도) 챗GPT를 오픈하고 시험을 본다”고 전했다. 이어 “GPT를 써도 자신이 공부한 게 없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얼마든지 출제할 수 있다”며 “달달 외우는 능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챗GPT로 논문 작성에 도움을 받은 대학원생 이효건(컴퓨터공학 2022) 씨 입장도 같다. 이 씨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못쓰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표했다. 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며 “연극영화과 등 코딩과 관련 없는 학과도 (챗GPT를) 써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AI는 챗GPT의 기반인 GPT-3.5에 이어, 2023년 인간의 시냅스 수와 비슷한 수준의 100조 개 매개변수를 갖춘 GPT-4를 내놓는다는 계획이다.